

〈관희록〉의 가사 발굴과 〈관동해가〉와의 비교*

구사회 · 김 영(선문대)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자료적 가치 |
| II. 〈관희록〉의 자료 검토 | V. 맺음말 |
| III. 〈관희록〉과 〈관동해가〉의 비교 | |

I. 머리말

근대 이전의 시가 문학은 시조와 가사가 주류를 이루며, 그것은 질량면에서 다른 시가를 압도하고 있다. 시조는 2007년도를 기준으로 이본을 제외한 새로운 작품이 5,763수로 거의 6천수에 근접하고 있다.¹⁾ 가사는 정확한 수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새로운 작품이 3천여 편에 이른다.

규방가사는 내방가사(內房歌辭)나 규중가도(閨中歌道)라고도 하는데, 여성들 사이에서는 흔히 ‘두루마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졌다. 규방가사는 주로 영남 지방에서, 그 중에서도 영남 북부에서 많이 지어졌다.²⁾ 규방가사는 내용이 다양하지만 양반부녀들의 생활주변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 내용은 제도에 속박 받는 여성들의 번민과 한탄에서부터 자연 체험이나 행락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413-A00004).

1)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별책보유)』, 아세아문화사, 2007, 38~182쪽.

2)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344~345쪽.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번에 공개하는 <관희록>도 그것의 하나이다. <관희록>은 양반 부녀자들이 동해를 유람하며 그곳의 풍경과 감회를 읊고 있는 풍류형 기행가사의 일종이다. 물론 <관희록>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여성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희록>에서는 자연에 대한 여성의 미감이 주조를 이룬다.

<관희록>은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사명이다. 그렇다고 독자적인 새로운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그것은 이미 보고된 <관동해가(關東海歌)>³⁾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이가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희록>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미 학계에 보고된 <관동해가>와 비교하여 그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관희록>의 자료 검토

<관희록>은 국문으로 기록된 규방가사인데, 가로 26.3×179cm의 두루마리이다. 전체 129행의 세로쓰기로 필사되어 있다. 각 행은 15자에서 19자로 불규칙적이다. 글자 수는 도합 2,000여 자에 이르는 중형가사이다. 이 자료는 현재 충주에 있는 우리한글박물관(구 미도민속관)에서 소장하고 있다.⁴⁾

창작 연도는 본문에 나오는 ‘시유오월이요 세계정묘로다’ 라는 어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묘년이다. 추정되는 정묘년은 1807년(순조12)과 1867년(고종 4년), 그리고 1927년도이다. 그런데 <관희록>과 유사한 <관동해가> 필사본은 2종이 있다. 하나는 고려대 소장본이고 다른 하나는 영남대 소장본이다. 고려대 소장본은 신유년(辛酉年)인 1801년이나 1861년경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 영남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관동해가>는 1930년대 이전

3) 김성배 외, 『주해가사문학전집』, 집문당, 1961.

4) 연구할 수 있도록 귀한 자료를 공해 주신 우리한글박물관 김상석 관장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에 유재하(柳在夏, 1897~1966)라는 사람이 필사한 것이다. 〈북천가〉를 비롯한 13수의 가사 작품이 함께 필사되어 있다. 고려대 소장본과 동일하게 원문에 “歲在辛酉年이오 月在五月이라”라는 구절이 나온다. 고려대본의 창작 시기를 1801년이나 1861년으로 추정하였듯이, 이 영남대본도의 창작 시기도 1801년이나 1861년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논의를 위해 〈관희록〉과 같은 작품으로 여겨지는 〈관동해가〉에 대하여 좀 더 부연할 필요가 있다. 〈관동해가〉가 알려진 것은 1961년 간행된 『주해가사문학전집』에서이다.⁶⁾ 거기에는 〈관동해가〉의 간단한 해제와 원문 입력문이 실려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입력문이 원문 그대로의 옛 표기가 아니라 현대 국어 표기로 입력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러두기에 인쇄 편의상 ‘아래아(·)’를 ‘ㅏ’로 고쳐 적었다고 밝히고 있다.⁷⁾ 이후 간행된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등에서도 『주해가사문학전집』에 수록된 현대 국어 표기로 입력된 원문과 서지 정보를 그대로 재인용하고 있을 뿐 보다 진전된 논의는 없다. 필자는 온갖 관련 서적들을 뒤지며 고려대 소장본 〈관동해가〉 조사하였지만, 필사본 〈관동해가〉를 찾을 수가 없었다.⁸⁾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이본 〈관동해가(觀東海歌)〉를 발견하였다. 이번에 찾아낸 자료는 영남대 소장 필사본으로 서명은 『가곡십삼종(歌曲十三種)』이다.⁹⁾ 이 책은 근대 국문학자인 도남 조윤제(1904~1976) 선생 소장본이다.¹⁰⁾ 〈관동

5) 김성배 외, 앞의 책. 원문에 나오는 “歲在辛酉年이오 月在五月이라”는 구절을 토대로 창작 시기를 추정한 듯하다.

6) 김성배 외, 앞의 책.

7) 이 책에 수록된 원문 입력본으로 작품이 필사된 시기를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필자는 책에서 밝히고 있는 작품의 창작 시기를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

8) Kripa에서 제공하는 컨테츠 가운데 임기중의 『역대가사문학집성』에서는 〈관동해가〉의 입력 원전을 “규방가사(寫本), 歌辭選(寫, 高大藏)”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정확한 소장처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고려대 소장 『가사선』은 확인 결과 〈관동해가〉가 실려 있지 않았다. 어느 원전을 근거로 하여 입력하였는지 현재로서는 도저히 추정해 낼 방법이 없다.

9) 귀중본으로 분류되어 있어 원전을 직접 볼 수는 없었고, 마이크로필름으로 확인하였다. 도움을 주신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실 곽해영 계장님께 감사드린다.

해가)는 전체 13작품 가운데 하나이다.¹¹⁾ 국한문혼용체이며, 한문은 초서체이다. 표지에 “安東郡 豊南面 河回洞 謄本者柳在夏 紙數一百十六枚”라 적혀 있다.¹²⁾ 표지에 적힌 등본자(謄本者) 유재하는 안동지역에서 국내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재하는 안동군 풍남면 하회동(현 풍천면 하회리) 출신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던 독립운동가이다.¹³⁾ 1920년 4월에 창립된 우리청년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1922년 서기를 역임하기도 하였다.¹⁴⁾ 표지 이면에는 유재하의 간략한 편지글이 있는데, 간단한 필사 경위 및 요금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이다. 소장자의 의뢰에 의해 가사들을 수집하고 등본한 듯하다.¹⁵⁾

구체적인 필사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수록된 작품들의 창작시기와 표지에 기록된 지명을 통해서 대략적인 시기 추정이 가능하다. 안동군 풍남면 하회동의 현재 행정구역 명칭은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이다. 풍남면은 1934년 행

10) 본문 첫면에 ‘陶南書室’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도남 소장 고서에 대해서는 옥영정, 『陶南 소장 고서의 書誌의 분석』, 『古典文學研究』 제27집, 한국고전문화회, 2007 참조.

11) 13수의 가사는 <희조사>(연대 미상), <단장인단표회라>(1920년대), <봉우춘회곡이라>(1904년), <고원하류가>(20세기 초), <歸來歌>(1912년), <回婚慶祝歌>(1927년), <회혼참경가>(1927년), <隱士歌>(1910년 이후), <옥설화담>(18세가 말~19세기 초), <觀東海歌>(19세기), <感懷歌>(20세기 초), <북천가>(1853년), <立春勝會歌>(연대 미상)이다. 창작시기를 살펴보면 모두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이며, 그중에서도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2) 도남 소장본 가운데 위의 필사기록과 동일한 필사본이 2종이 더 있다. 『歌曲三十八種』과 『歌曲十四種』이 그것이다. 각각 ‘慶尙北道安東郡豊南面河回洞 謄本者柳在夏 紙數五百十六枚’, ‘安東郡豊南面河回洞 謄本者柳在夏 紙數一百二枚’라 쓰여 있다. 두 책 모두 비슷한 시기에 필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13) 유재하에 관한 정보는 국가지식포털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http://www.ugyo.net/>)’에서 수집하였다.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14) 동아일보 1922년 4월 23일자 제4면에 各地靑年團體라는 란에 ‘우리靑年會總會’라는 제목으로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15) 옥영정, 위의 논문 215쪽 참조. 이면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貴體候萬安하심을 仰祝하나이다 歌曲은 謄本하은 디로 우선 付送호오니 考領하신 후 料金は 生에 名義로 惠送하기를 千萬切仰切仰耳.

정구역 개편 전까지 사용되었던 명칭이며, 이후에는 풍천면으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필사 시기는 수록된 13종 가운데 가장 늦게 창작된 가사가 1927년이므로, 1927년 이후부터 행정구역 개편 전인 1934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창작 시기는 고려대본과 마찬가지로 20세기인 1921년 신유년이 아니라 1801년이나 1861년 중에 창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내용은 일부 글자의 출입이 다른 점을 제외하고는 고려대본과 거의 똑같다.

우리 한글박물관 소장본 〈관희록〉의 필사 상태는 양호하다. 일부 잘못 쓴 글자를 수정한 흔적도 있고, 누락된 글자를 보충해 써 넣기도 하였다. 잘못 기록한 글자들도 더러 확인된다. 예컨대, 격양가를 ‘겨양가’, 평원광야를 ‘퍼원광야’로, ‘디희’에서 ‘희’를 빠뜨린 채 ‘디’만 쓰고 있는 경우들이 그러하다. 서체는 고졸한 민체이다.

우리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가사 이름은 〈~가〉·〈~곡〉·〈~사〉 등이 대부분이고 〈~록(녹)〉이 드문 편이다. 〈~록(녹)〉은 가사보다는 오히려 소설 작품에서 많이 보이는데, 가사에서는 〈금강산유산록(金剛山遊山錄)〉과 같은 기행가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작품에서 구체적인 산명이 언급되는데, 바로 ‘상대산’이다.¹⁶⁾ 〈관희록〉의 작자는 바로 상대산에서 바라본 빼어난 절경과 동해의 모습들을 보면서 투영시켜 풀어내고 있다. 상대산(上臺山)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이는 183m으로 비교적 낮다. 이 산은 정상에 오르면 동해의 넓은 바다와 모래사장, 솔숲과 영해평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동해안 명승절경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 상대산 서쪽 절벽을 관어대(觀魚臺)라고 하는데, 고려 말의 문인이었던 목은 이색(李穡 1328~1396)이 ‘상대산 너머 바닷가의 고기를 셀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지은 것이라고 한다.¹⁷⁾ 이후로 상대산을 통틀어 관어대라고 칭하기도 한다. 빼어난 절경 때문에 이색을 비롯하여 조선 초의 성리학자 김종직(金宗直, 1431~1492)과 같은 여러 학자들이 〈관어대〉라는

16) 예문은 다음과 같다. ‘상대산 상·봉의 을느 서· 좌우를 침관하니 천허강산이 인등의 역· 허디/ ‘동희에 심원훈 경기와 승대산형의 슈례호물 층양치 못홀지라/ ‘동희에 심원훈 경기와 승대산형의 슈례초물 디강 초설호노라’

17) 『목은시고』 1권, 〈觀魚臺小賦 并序〉.

제목의 시를 남기기도 한 곳이다.

〈관희록〉은 규방가사로 작자는 양반층 여성이다. 이는 ‘규리의 우리 여즈/ 일미 여즈로 강싱흐나/ 천의 불헝흐야 규리의 강싱흐나/ 은도(銀刀)/ 나군(羅裙)/ 등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사 작품은 ‘시유오월이요’ 이라는 구절과 후반부의 ‘부용화(芙蓉花) 단오절(端午節)의 슈십 제류(諸類)를 쌀와 히슈산천(海水山川)을 침관(瞻觀)하니’라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화창한 단오날에 여럿이 동해를 유람하면서 목도하는 풍광과 그것의 감회를 서술한 풍류형 기행가사이다.

작품의 필사는 근대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고어 역시 많지 않다. 어휘 특징으로는, 작품 내내 시종일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시에서 나오는 구절이나 전고가 있는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어 작자의 학적수준을 가늠할 만한 방증이기도 하다. 즉, 상당한 한문 소양을 갖춘 사대부가 여인이라 추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요즘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고유어가 확인된다. 예를 들어 “쌍다”의 의미인 ‘무으다’, “사이에 두다”의 의미인 ‘지움치다’, “얼음판”의 의미인 ‘어렵판’, “훤칠하다”는 의미인 ‘훤출흐다’, “마음이 북받쳐서 벅차다”라는 의미인 ‘늦거이’¹⁸⁾ 등이다.

Ⅲ. 〈관희록〉과 〈관동해가〉의 비교

1. 작품의 동일성과 차별성

〈관희록〉이란 바다를 보고 느낀 바를 가사 운율에 맞춰 적고 있는데, 그 대상은 동해이다. 〈관동해가〉도 관동의 바다를 보고 읊은 노래라는 뜻이니 〈관희록〉과 의미상으로 차이는 없다.¹⁹⁾ 〈관동해가〉는 이미 알려진 작품이며,

18) ‘늦거이’의 표기 형태는 부사이지만 본문의 ‘이리 조흔 무흔경(無限景)을 늦거이 도라가며 후흔(後恨)이 깃흐리라’는 문장에서 보이듯이 형용사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19) 고대본은 〈關東海歌〉로, 영남대본은 〈觀東海歌〉로 기록되어 있다.

〈관희록〉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이다. 그런데 살펴보니, 〈관희록〉과 〈관동해가〉는 가사명만 다르지 같은 작품으로 여겨진다.

오호뉴지동희슈는 스희중 웃듬이오 조선 중의 디지로다
 세상이 한유하야 동희로 조종히이
 스희팔방 너른 고디 억조충심 낙을 숨아
 이 물의 낙근 고기 우리 셔창 진봉히니
 규리의 우리 여즈 심방의 장축히니 그 아니 가석홀가 〈관희록〉

오호유지東海水난 四海中에 웃듬이오 朝鮮中 大地로다
 세상이 한유하야 東海水 祖宗이라
 四海八方 너른 곳에 億兆창심 낙을 삼아
 이 물에 낙근 고기 성왕전 봉흐옵고
 슬푸다 우리 女子 深閨에 잠축히니 기 안이 可惜할가 〈관동해가〉

이는 〈관희록〉과 〈관동해가〉의 서사 부분이다. 이들은 표기법에서 차이가 나고, 표현에서 부분적인 도치나 어휘 첨가가 있을 뿐이다. 국한문 혼용의 〈관동해가〉는 개화기나 현대 표기법이 혼재되어 있다면, 〈관희록〉은 국문 전용에 한글맞춤법 통일안 이전의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서술에서도 내용상으로도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 셔창 진봉히니(〈관희록〉)’가 ‘성왕전 봉흐옵고(〈관동해가〉)’로, ‘규리의 우리 여즈(〈관희록〉)’가 ‘슬푸다 우리 女子(〈관동해가〉)’라는 식으로 바뀔 뿐이다.

화자는 오월의 화창한 봄날에 여럿이 동해를 유람하면서 목도하는 풍광과 그것의 감회를 서술하고 있다. 화자는 동해수가 세상의 으뜸이자 조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는 부분에서 이 작품이 규방가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작품에서 고향을 그리는 여성의 처지를 한탄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다른 규방가사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관희록〉의 〈관동해가〉에 대한 두드러진 차이는 확대에 있다. 〈관동해가〉는 2음보 1구로 계산하여 190구의 중형가사로서 ‘此身은 엇지하여 우리 고향 못 가난고’로 끝난다. 그것에 해당하는 〈관희록〉의 어구는 ‘츠신은 엇지하여 그림지도 고향의 형치 못흐난고 초상슈류호도다’이다.

관희도 조권이와 月出於東山之上호야 明光이 찰난호다
 月出한 저 봉 우에 神仙이 하강호야
 흑장삼 펼쳐 입고 百八염주 목에 걸고
 영낙업시 두 손으로 유리징반에 홍옥을 둘러 다마
 乾坤天地에 갑 엮난 이 보비를 천연이 다마 들고 分明이 올라온다
 河水에 빚친 月光 우리 고향 보련만은 消息이 묘망호고
 風無手이 요木이오 月無足이 行千里던
 此身은 엇지하여 우리 고향 못 가난고 <관동해가>

오호관희도 조커이와 월출어동산지상호야
 명광을 망극의 흘렸도다
 월출곳 봉니슨 선승의 옥계호령으로
 홍지장삼을 펼쳐 입고 팔성진두를 목의 걸고
 영낙업시 두 손으로 유리징반의 홍옥을 가을 둘러
 건곤천지 갑업슨 보비랄 정영이 다마 들고 분명히 올라온 닷
 호슈 빚친 월광은 우리 고향 보건마는 귀운이 묘망호다
 풍무슈이요목호고 월무츄이헝천호디
 츄신은 엇지호여 그림지도 고향의 헝치 못호난고
 초상슈류호도다 <관희록>

위에서 <관희록>이나 <관동해가>는 둘 다 동해를 유람하며 산봉우리 위로 떠오르는 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장삼을 걸쳐 입은 신선이 유리 징반에 홍옥을 담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하수에 비친 달빛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출가외인으로 고향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관동해가>에서 이 부분은 결사로써 끝맺는 부분이다. 반면에 <관희록>에서는 결사가 아니고 다시 60여구가 넘는 새로운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동희에 심원호 경기와
 승디산형의 슈려호물 층양치 못호지라
 골운산 일지막이 중남슨을 부익호고
 황호슈 말근 물이 호강슈 기우러서
 오천만연 우리 국세
 성즈신손의 계, 승, 호압서

준나라 팔빅연 기엄을 흰명천지 기복한난도다
 죽순기봉은 조선을 기세홀 계 위국향의 되어
 이세 충의를 장양하여 천기를 감동하니
 우리 국조 만수무강 오호 소승의 승지라
 침관하여 명순디슈의 모련은 경지라
 일건의 어람코져 흙은 소옥의 이득이며
 이와 틈스천의 적벽강 말근 시부로
 문답홀 지 업스니 감탄츄탄이로다
 아조난 동방 공지시오 디; 성천현 명망은 일월 갖흐시니
 즈손의 영광이 조선의 처엄이요 만세의 빈는지라
 천의 불헝하야 규리의 강성하나
 일심지원이 용문봉치에 명주를 근시하여
 일흠을 죽빅의 붓치고져 조조 충현디도라 앙목하미
 습빅연 고목세순 위국성심 업슬손가
 부용화 단오절의 슈십 계류를 쌀와
 희슈스천을 침관하니
 만당홍승 분명 치중은 화안월묘난 명월이라
 북방헝처의 싱중하여
 슈빅이 불영 고봉이 만좌하니
 심간이 황홀하다
 동희에 심원흔 경지와 승디순형의
 슈례초물 디강 초설하노라
 무궁흔 창희슈는 갑 업스 경이라
 너의 연소흔 소선[건]과 용츄흔 의스로
 엇지 관희록 성설되어서리만는
 손천이 영여하고 지시물식이 가휘포 하륙하미
 아득흔 홍금을 여러 초; 디강 기록하느
 타인의 치소랄 먼치 못하리로다 〈관희록〉

〈관동해가〉에는 없고 〈관희록〉에만 있는 이 부분은 동해의 심원함과 산형의 수려함, 그리고 명월의 오묘함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작중 화자는 그것을 단순한 명산대천의 아름다움으로만 보지 않고 오천만년 조선의 국세와 기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서사 부분에서 사해의 으뜸인 동해수가 조선의 대지이고 이곳에 어진 임금의 성택이 고루 미친다는 전체

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이 <관희록>에는 있고 <관동해가>에 없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추정이 가능하다. 그것은 <관동해가>에서 누락되었느냐, 아니면 <관희록>에서 첨가되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관희록>의 앞부분에서 유상적(遊賞的)인 내용을 위주로 서술되다가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국토를 찬미하고 문물제도를 찬양하는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게다가 <관동해가>는 고대본과 영남대본이 유통되고 있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누락보다는 <관동해가>가 전승되다가 누군가 이 부분을 덧붙여 <관희록>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2. 어학적 검토와 필사 시기

<관희록>과 <관동해가>은 동체이명(同體異名)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작품은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에서 서로 유사하다. 다만, <관희록>에는 <관동해가>에 없는 60여구가 더 있고, 부분적으로 어휘 표기나 표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확실하지 않지만 처음에 누군가 <관희록>이나 <관동해가>를 창작하였을 것이다. <관희록>이 먼저 지어졌다면 <관동해가>는 그것을 모본으로 하되 축소하여 가다듬어졌을 것이다. 반면에 <관동해가>가 먼저 지어졌다면 그것을 <관희록>으로 확대시켰을 것이다.

이들 작품은 이본이 거의 없다. <관희록>은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가 유일하고 <관동해가>는 고대본과 영남대본이 있을 뿐이다. 영남대본도 이번에 필자들이 찾아낸 것이다. 필사 시기는 모두 20세기 초반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의 표기, 음운, 문법 등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내기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간략하게나마 나타나는 특징들을 기반으로 하여 작품 자체의 필사 시기에 대한 선후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기법은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종성표기 ‘ㄷ’과 ‘ㅅ’표기의 차이가 증명되는 예가 있다.

- (1) 스희팔방 너른 고디 역조중싱 낙을 숨아 <관희록>

四海八方 너른 곳에 億兆창성 낙을 삼아 〈관동해가〉

공간적인 또는 추상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의 고행은 ‘곧’이다. 〈관희록〉에서는 그 고행을 유지한 채 연결되어 ‘고디’로 표기되었지만, 〈관동해가〉는 종성 ‘ㄷ’이 ‘ㅅ’으로 변화하여 ‘곳’으로 표기되었다. 처소격조사 ‘-이’도 〈관동해가〉에서는 ‘에’로 표기되어 ‘곳에’ 라는 분절된 모습을 보인다.

둘째, 용언 ‘흐다’의 어간 ‘흐-’가 ‘·’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 ‘ㅏ’로 변화한 경우의 빈도율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 (2) 한유흐야, 가석흐가, 화명흐고, 비회흐이, 중슈무궁흐오리라, 손역흐이,
 디흐난듯, 갓흐, 듯흐더라, 민멸흐지라, 흐여시니, 슬슬흐고, 지촉흐니,
 엇지흐여 …… 〈관희록〉

한유하야, 可惜하가, 溫和하고, 비회하니, 百代壽無康하다, 사역하니,
 디하난듯, 갓하, 듯하도다, 민멸치 안할하노다, 하엿스니, 슬슬하고, 지촉하니,
 엇지하여 등 …… 〈관동해가〉

〈관희록〉을 살펴보면 ‘·’ㅏ’의 변화를 겪은 횟수가 〈관희록〉에서는 단 4회뿐이지만, 〈관동해가〉에서는 21회나 된다. 앞 장에서 언급한 바처럼 〈관희록〉은 결사부분이 〈관동해가〉에 비해 60여 구나 추가되어 그 분량이 훨씬 많다. 보다 대등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관희록〉을 〈관동해가〉의 결사부분까지만 제한하여 살펴보면 〈관희록〉에서 용언 ‘흐-’의 형태 유지 횟수는 82회인 반면, 〈관동해가〉는 45회로 거의 절반에 가깝게 ‘·’ 사용 표기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구개음화 현상 반영 유무이다. 구개음화는 보통 모음 ‘ㅣ’나 반모음 (y) 앞에서 ‘ㄷ, ㅌ, ㄸ’이나 ‘ㄱ, ㅋ, ㄲ’이 ‘ㅅ, ㅆ, ㅈ’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²⁰⁾ 이러한 구개음화는 17세기와 18세기의 교체기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²¹⁾ 본 자료에서는 적게나마 일부 ‘ㄷ’구개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형

20) 이광호, 『근대 국어 문법론』, 태학사, 2004, 82쪽.

21) 이기문,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1972, 197쪽.

태를 볼 수 있다.

- (3) 디세도, 등유햐야, 진듀랄, 디기난, 딘세예, 이기디, 팔성진듀롤 …… 〈관
희록〉
地勢난, 中流햐야, 진जू을, 지기난, 진익에, 百八염जू …… 〈관동해가〉

〈관동해가〉에서는 모두 구개음화 현상이 반영되었지만, 〈관희록〉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반영된 예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예도 있다. 위에서 제시한 어휘들을 살펴보면, 〈관희록〉에는 분포도가 높진 않지만 ‘디세, 진듀, 디기, 딘세, 이기디’ 등 어두와 문법형태소에서 구개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표기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이들 두 자료가 모두 경상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는 바, 구개음화가 경상도나 전라도의 남부방언에서 일찍 시작되었던 음운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희록〉에는 일부 고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관동해가〉에서는 구개음화가 반영된 예만 나타나고 있다.

넷째, ‘ㅎ’말음 체언이 확인된다.

- (4) 동역호로, 물 우히, 청풍 우히, 가지 우히 〈관희록〉
東으로, 물 우에, 청풍에, 가지 우에 〈관동해가〉

중세국어에는 곡용할 때 ‘ㅎ’말음을 가지는 명사들이 있었는데, 그 ‘ㅎ’말음 명사들은 근대 국어까지 일부 유지되어 오다가 대개 19세기 초중반에 이르르면 탈락되는 경향을 가진다.²²⁾ 위의 용례를 살펴보면 〈관희록〉에는 ‘동역호로’, ‘우히’가로 ‘ㅎ’말음 체언이 유지된 형태를 띤다. 그러나 〈관동해가〉에서는 ‘東으로’, ‘우에’로 탈락된 모습이다.

다섯째, 의미적인 측면에서 어휘의 사용 변화도 보인다. 그 예로는 〈관희록〉에서 해가 지다는 의미로 ‘찌러지고져’를 쓰고 있는 반면에 〈관동해가〉는 ‘지고’로 교체되었다.

22) 황문환, 「도야기문의 어휘적 고찰」, 『도야기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329쪽.

여섯째, 〈관희록〉의 ‘츄을’이 〈관동해가〉에서는 ‘츄을’로 교체되었는데, 이는 이중모음이 단모음화한 예이다. 현대국어로 변화해 가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관희록〉과 〈관동해가〉는 1900년 이전에 창작되어 20세기 초기에 필사된 가사 작품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근대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바뀌는 시점이므로 근대국어의 성격과 현대국어의 성격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었다. 두 자료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몇몇 표기와 음운 현상 특징들을 한정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지만 일부 중성 표기, 구개음화 반영 유무, 용언 ‘ㅎ-’의 활용도 등에서 〈관희록〉이 〈관동해가〉보다 더 많은 고형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표현 기법의 문제

〈관희록〉과 〈관동해가〉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차이가 난다. 두 작품은 서로 도치되기도 하고 특정 어구가 첨가되며 확대되고 어휘와 어구가 교체되고 있다.²³⁾

- ㉠청천의 구람 모닷/ ㉡만수산의 안기 피닷/
 ㉢옥경의 선학이오/ ㉣지상의 신선이라/
 ㉤일진향풍의 쇠옥 낭연호야/ ㉥옥경의 선혹이오/
 ㉦디상의 신선이라 /㉧순식의 모든 좃취/ 〈관희록〉

이는 〈관희록〉의 일부분으로 아녀자들이 동해 바다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 드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관희록〉에서 동해를 구경하는 사람이 한두 여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사람들이 푸른 하늘에 구름이 모여들 듯이, 만수산에 안개가 피워 오르듯이 모여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모습은 천상의 선학과 같고 지상의 신선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런데 〈관동해가〉에서는 도치되어 다음과 같이 배열되고 있다.

23) 〈관희록〉과 〈觀東海歌〉를 비교하기 위해 편의상 ㉠㉡㉢㉣와 같은 원부호를 첨기하였다.

- ㉔玉京에 선학이오 ㉕요지에 神仙이라
 ㉖淸天에 구름 못듯 ㉗萬壽山 안기 못듯
 ×일제히 모여드니 ㉘地上에 神仙이오
 ㉙玉京에 仙鶴이라 ㉚순식이 모은 자취 <관동해가>

<관희록>에서는 ㉖/㉗/㉘/㉙/㉚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관동해가>에서는 가사 일부가 바뀌며 ㉕㉖㉗㉘㉙의 순서로 재배치되고 있다. 운율이나 표현은 <관희록>보다 <관동해가>가 보다 정밀하고 자연스럽다.

다음으로 <관희록>과 <관동해가>는 서로 축약과 확대의 관계에 있다. 대체적으로 <관희록>의 처지에서 <관동해가>는 생략과 축약의 관계가 되고, <관동해가>의 처지에서 <관희록>은 부연과 확대의 관계가 된다.

東海을 목격호여
 觀海을 하엿스니
 흥금이 상괘하다 <관동해가>

동해강산을 지척의 목견호야 관희랄 즈서이 호여시니
 흥금이 환출호와 요곡기암벽호니
 은슈피절 흥부르 금일기심처의 용비조죽음이라
 은도랄 양슈로 유류호야 물속 옥의 조기랄 점ᆞ이
 에워니여 분석호니 향취가 응비하다
 종일토록 완송호나 도라오기 바히 슬코
 여흥이 미진호야 무슨 노름 조홀손고 <관희록>

<관동해가>에서는 동해 바다를 바라보니 가슴이 상괘하다고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관희록>에서는 그것에다 부연하여 확대시키고 있다. <관희록>에서는 기암절벽이 서있고 물속에서 조개를 캐어 향취를 맡는 행위까지 보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관동해가>에서는 관해의 결과가 가슴이 상괘하다는 정도인데, <관희록>에서는 돌아가기 싫다는 강렬한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관동해가>에서 본다면 <관희록>의 번잡하고 불분명한 가사 내용을 덜어내고 적합한 표현으로 압축한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관희록>과 <관동해가>에서는 어휘가 바뀌는 경우에서부터 어

구가 교체되거나 어절 자체가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 〈관희록〉에서 ‘어렴판의 녹류를 써치난 듯 광천은’이 〈관동해가〉에서는 ‘얼음판에 농주를 편지난 듯 물빛천’이다. 이것은 어휘 교체의 사례이다. 다음은 어휘가 넘나들고 어구가 교체되는 사례이다.

인연히 도연명의 심야오류랄 디하난 듯
 지연흔 이시와 포일흔 이기 스로 나눈 듯허더라
 즈겨 구원 고희니는 일월 갓흔 청춘으로 슈중고흔이 되야 〈관희록〉

울입處士 도연명에 菊花酒을 디하난 듯
 지연한 이사와 초일한 정신이 나난 듯하도다.
 昔日에 굴삼여난 日月 갓흔 忠節노셔 青春에 고희 되야 〈관동해가〉

이것은 화자가 동해의 산천을 바라보며 완상하는 부분이다. 예문에서 초나라 굴원(屈原)이 충군의 심정으로 먹라수에 빠져 죽은 것을 상기하는 〈관희록〉의 ‘일월 갓흔 청춘으로 슈중고흔이 되야’라는 어구가 〈관동해가〉에서는 ‘昔日에 굴삼여난 日月 갓흔 忠節노셔 青春에 고희 되야’로 바뀌고 있다. 한편, 고대본 〈관동해가〉에서는 ‘日月 갓흔 忠節노셔 青春에 고희 되야’라는 표현에서처럼 ‘忠節’이라는 어휘가 새롭게 첨가되고 있다.

〈관동해가〉와 〈관희록〉의 표현은 전체적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정밀하고 자연스럽다. 이들 작품은 어구가 서로 도치되거나 특정한 어구가 첨가되고 있다. 이들은 서로 축약과 확대의 관계에 놓여 있는데, 수식이 더해지거나 첨가되면서 〈관동해가〉에서 〈관희록〉으로 확대되는 형태로 여겨진다.

IV. 자료적 가치

규방가사는 교혼류나 신변탄식류가 주조를 이룬다. 부녀자들이 생활 중의 놀이나 모임에서 즐기는 취락적인 내용의 풍유류도 많다. 이번에 나온 〈관희록〉도 탐승이나 기행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것의 하나이다. 풍유류 규방가

사는 부녀자들끼리 모여서 즐기던 놀이나 친정나들이, 또는 승지기행을 모티브로 지은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적한 가운데 앉아서 풍류를 즐기던 것을 계기로 창작한 것도 있다.

〈관희록〉과 〈관동해가〉은 조선후기 가사 작품의 변개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황산별곡〉에서도 찾을 수 있다. 〈황산별곡〉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황남별곡〉을 텍스트로 삼아 그것을 흡수하고 변형하여 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⁴⁾ 노랫말의 개작은 조선초기의 속악가사처럼 정치적인 경우도 있었고, 조선후기의 시조처럼 가창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가사의 경우에는 드문 편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관희록〉의 경우에 나타나는 작품 개작은 〈황산별곡〉과 더불어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의 하나이다.

〈관희록〉과 〈관동해가〉는 언제부터인가 가요명이 달라졌지만 본래는 둘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것이 축약되거나 확대되는 개작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그것을 〈관동해가〉에서 〈관희록〉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았다. 처음엔 필자도 〈관희록〉에서 〈관동해가〉로 축약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조사 과정에서 고대본 〈관동해가〉와 거의 같은 영남대본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관희록〉에만 있는 부분이 전체적 흐름에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였다.

〈관희록〉은 국어학적인 측면에서도 일부 고형의 어휘가 남아 있어 가치가 있다. 이는 오늘날에 사용하지 않는 몇몇 고유어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 고유어로 ‘쌓다’의 의미인 ‘무으다’, ‘사이에 두다’의 의미인 ‘지음치다’, ‘얼음판’의 의미인 ‘어렴판’, ‘훤칠하다’는 의미인 ‘훤출흐다’, ‘마음이 북받쳐서 벅차다’라는 의미인 ‘늦거이’ 등을 찾을 수 있었다.

24) 구사회, 「〈황산별곡〉의 작자 의도와 문예적 검토」, 『한국언어문학』 59집, 한국언어학회, 2006, 161~182쪽.

V. 맺음말

이 논문은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가사 작품인 〈관희록〉을 발굴하여 소개한 것이다. 〈관희록〉은 부녀자들이 동해를 유람하고 그곳의 풍경과 감회를 읊고 있는 풍류계 규방가사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조선후기인 19세기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동해가〉와는 동체이명(同體異名)의 관계이다. 이들 작품은 전체적으로 형태나 구조가 서로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이들 작품은 어휘 표기나 표현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어휘가 교체되거나 어구가 이따금 축약되거나 확대되고 있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차이는 없지만 〈관희록〉에는 〈관동해가〉에 없는 60여구가 추가되고 있었다. 표현은 〈관동해가〉가 〈관희록〉보다 전반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다.

〈관희록〉은 작자명도 없고 아직 이본도 발견되지 않았다. 〈관희록〉은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가 유일하고 〈관동해가〉도 고대본과 영남대본이 있을 뿐이다. 영남대본도 이번에 찾아낸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들 작품의 선후 문제는 불분명하다. 정황상 〈관희록〉이 먼저 지어졌다면 〈관동해가〉는 〈관희록〉을 모본으로 축소하여 가다듬어졌을 것이다. 반면에 〈관동해가〉가 먼저 지어졌다면 덧붙여져 〈관희록〉으로 확대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관동해가〉에서 〈관희록〉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것의 주된 이유는 〈관동해가〉의 두 이본이 일치하고 있고, 더 나아가 〈관희록〉에만 있는 60여구의 내용이 전체적 맥락에서 사뭇 달라지거나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관희록〉의 자료적 가치는 조선후기에 일어났던 가사 작품의 변개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것에는 국어학적으로도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몇몇 고유어가 담겨 있었다.

■주제어 : 규방가사, 풍류형, 동체이명, 유재하, 가사 개작, 황산별곡

〈참고문헌〉

- 〈관희록〉, 한글필사본(두루마리), 우리한글박물관(구 미도민속관) 소장.
- 〈관동해가〉, 한글필사본,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 박재연(2002), 『中朝大辭典』(9책),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선문대학교 출판부.
 _____(2010) 주편, 『필사본고어대사전』(7책),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학교방.
- 구사회, 「〈황산별곡〉의 작자 의도와 문예적 검토」, 『한국언어문학』 5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161~182쪽.
-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 김성배·박노춘 외 편저, 『주해가사문학전집』, 집문당, 1961.
-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별책보유)』, 아세아문화사, 2007.
- 옥영정, 「陶南 소장 고서의 書誌的 분석」, 『古典文學研究』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191~234쪽.
- 이광호, 『근대 국어 문법론』, 태학사, 2004.
- 이기문,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1972.
- 이상보 외, 『주해가사문학전집』, 집문당, 1981.
- 이색, 『목은시고』 1권, 〈觀魚臺小賦 并序〉.
-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집성』(<http://www.krpia.co.kr/pcontent/>).
- 한국국학진흥원, <http://www.ugyo.net/>
- 홍윤표, 『근대국어연구(1)』, 태학사, 1994.
- 황문환, 「도야기문의 어휘적 고찰」, 『도야기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Abstract>

A New Discovered of 〈Gwanhaerok〉 and Comparing It to 〈Gwandonghaega〉

Gu, Sa-whae · Kim, Young

This essay introduces 〈Gwanhaerok〉, a collection of lyrics that has been recently excavated. 〈Gwanhaerok〉 is a work of so-called ‘gyubang-gasa’, or “the lyrical literature of women’s quarters”, in the romantic style marked by elegant and learned expressions of a group of female narrators remarking on the land scapes and impressions that they encounter while traveling along the East Coast of Korea. Historians estimate that the book was composed sometime around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late Joseon period. 〈Gwandonghaega〉 is a dongche-yimyeong, i.e., much of the same work with a different title. The two collections of lyrics, in other words, share quite a similar form and structure, with the only exception being the fact that 〈Gwanhaerok〉 contains 60 phrases or so more than 〈Gwandonghaega〉.

No author has been identified for 〈Gwanhaerok〉, nor has a different version or edition been found. It remains to be determined which of the two collections precedes the other. For the purpose of this essay, I assume that 〈Gwanhaero〉 is the later and more expanded take on 〈Gwandonghaega〉, 〈Gwanhaerok〉 provides a significant clue for tracing the evolution of lyrics as a literary genre through the late Joseon period. The collection also contains a number of unique words that are no longer used in the Korean language.

【Key words】 : gyubang-gasa, Yu Jae-ha, adaptation, travel gasa, Hwang-sanbyeolgok

구사회

선문대학교 인문외국어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336-708)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선문대학교

전자우편 : shku@sunmoom.ac.kr

김 영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연구교수

(336-708)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선문대학교

전자우편 : jinying@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10월 28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12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7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부록]

원문 판독 및 주석

아래의 원문은 원문을 보고 필자가 입력 주석한 것이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원문의 판독문을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꾸었다. () 안의 한자는 원문의 이해를 돕고자 필자가 임의로 넣었다.

관히록

오호뉴지동희슈(五湖流之東海水)는 스희중(四海中) 으뜸이요
조선(朝鮮) 중의 더지(大地)로다
세상이 한유(閑遊) 히야 동희(東海)로 조종(祖宗) 히이
스희팔방(四海八方) 너른 고디 억조충생(億兆蒼生)²⁾ 낙을 숨아
이 물의 낙근 고기 우리 서창 진봉(進奉) 히니³⁾
규리(閩裏)⁴⁾ 우리 여즈 심방(深房)⁵⁾ 장축(藏蓄) 히니⁶⁾ 그 아니 가석(可惜) 힐가
시유오월(時有五月)이요 세제정묘(歲在丁卯)로다
천기(天氣) 난 화명(和明) 히고⁷⁾ 남풍(南風)은 훈(薰) 하다
건곤(乾坤)⁸⁾ 화기(和氣) 융(融融) 히여⁹⁾ 산천(山川)이 유광(有光) 히니
초목(草木)도 무성(茂盛) 히다
스희(四海)에 명상¹⁰⁾은 당(堂堂) 히이 월호(月湖)라
만물(萬物)이 화창(和暢) 히니 관히(觀海)가 맛당 히다
원근제류(遠近諸類) 다 청(請) 히니 일각(一刻)이 치 못 히여
완(緩緩) 히 연(連) 보(步)로 제(濟濟) 히 모혀드니

-
- 1) 한유(閑遊) 히야: 한가로이 노닐어.
 - 2) 억조충생(億兆蒼生): 수많은 백성 또는 수많은 세상사람.
 - 3) 진봉(進奉) 히니: 임금님께 바치네.
 - 4) 규리(閩裏)의: 규방 안의.
 - 5) 심방(深房)의: 깊숙한 방에.
 - 6) 장축(藏蓄) 히니: 간직해 두니. 숨겨두니.
 - 7) 화명(和明) 히고: 따뜻하고 맑으며.
 - 8) 건곤(乾坤)이: 하늘과 땅이
 - 9) 융(融融) 히여: 화목하고 평화스러워/ 화기에 애하여.
 - 10) 명승(名勝)을 뜻하는 뜻함.

청천(青天)의 구름 모닷¹¹⁾ 만수산(萬壽山)의 안지 피닷
 옥경(玉京)의 쇠옥이¹²⁾ 선학(仙鶴)이요 지승(地上)의 신선(神仙)이라
 일진향풍(一陣香風)의 쇠옥 낭연(琅然) 하야¹³⁾ 옥경(玉京)의 선학(仙鶴)이요
 지승(地上)의 신선(神仙)이라
 순식(瞬息)의 모든 좃취(倏聚) 산천상(山川上)의 비회(徘徊) 하이
 치의홍군(彩衣紅裙)¹⁴⁾은 백화(百花)로 길을 쓰며
 천산만봉(千山萬峰)은 유중(帷帳)¹⁵⁾을 둘러는 듯
 옥암(玉巖)이 영영(盈盈) 하고¹⁶⁾ 산천(山川)이 슈려(秀麗) 하이
 지세(地勢)도 광활(廣闊) 하다
 천티산(天台山)¹⁷⁾이 현무(玄武)¹⁸⁾ 되고 남산(南山)이 주죽(朱雀)¹⁹⁾이라
 좌청룡(左靑龍) 당(堂堂) 하 정맥(正脈)이 셔간으로 흘러 이순
 우백호(右白虎)로 셔린 댁이 동역호로 기우려져
 황하수(黃河水) 양자강(揚子江)이 전후를 우립(鬱立) 하니²⁰⁾
 억만연(億萬年) 우리 국조(國祚) 일월(日月) 갖치 구더시니
 충희(滄海)에 우리 인성(人星) 백대(百代)에 중슈무궁(長壽無窮) 하오리라
 평원광야(平原廣野)의 반화반벽 하였고
 가기난 우(雨) : 충(우우匆匆) 하이 시화세풍(時和歲豐)²¹⁾이요
 티평성대(太平聖代)라
 요천일월(堯天日月)²²⁾이요 순세건곤(舜世乾坤)²³⁾이라
 전야(田野)의 농부(農夫)들은 실농씨(神農氏)²⁴⁾ 덕을 비러 밧골을 손역(山役) 하이

11) 모닷 : 모이듯이.

12) 세 글자를 둥그랗게 테두리를 그렸는데 삭제한다는 표기로 판단됨.

13) 낭연(琅然) 하야 : 낭랑하여.

14) 치의홍군(彩衣紅裙) : 울긋불긋 고운 빛깔의 옷과 붉은 치마.

15) 유중(帷帳) : 휘장. 장막.

16) 영영(盈盈) 하고 : 아리따고.

17) 천티산(天台山) : 중국 절강성(浙江省)에 있는 산으로 불교의 한 종파인 천태종(天台宗)의 본산이 되었음.

18) 현무(玄武) : 북방을 관장하는 신으로 거북이로 상징함.

19) 주죽(朱雀) : 남쪽을 관장하는 신으로 붉은 봉황으로 상징함.

20) 우립(鬱立) 하니 : 뻣뻣이 들어서니.

21) 시화세풍(時和歲豐) : 시절이 태평하고 풍년이 들다.

22) 요천일월(堯天日月) : 요임금이 다스리던 태평스런 시대.

23) 순세건곤(舜世乾坤) : 순임금이 다스리던 태평스런 시대.

24) 실농씨(神農氏) : 상고시대(上古時代) 중국제왕(中國帝王)의 이름, 처음으로 인민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침.

겨양가[擊壤歌]²⁵⁾ 남풍시(南風詩)²⁶⁾가 처(處處)의 즉(卽)하다
 취수(聚手)하여²⁷⁾ 상대(上臺)에 안주(安住) 나군(羅裙)²⁸⁾을 서로 좁고
 호가히 대회(大海)탈(脫) 뉴완(遊玩)하여
 만경중파(萬頃蒼波)²⁹⁾의 일천 구비 물결은 비옥(白玉)을 헛쳐난 듯
 수광(水光)이 출난(出)하여 음운(音韻)이 굉중(轟中)하다
 금식수식(金色水色)이라 백낭창파[白浪滄波]의 소선(小船)이 중유(中流)하여
 대양(大洋) 왕니(往來)하니 청천백운(靑天白雲)이 머무난 듯
 선동묘죽은 모(毛)히 팔괴(八塊)로 무운³⁰⁾ 모양
 금스옥사(金絲玉絲)로 이엇난 듯 물 구비난 창(滄滄)하여
 명주(明珠) 구으르난 소리 산천(山川)을 현들며
 오르락 나르락 오월(五月) 남천(藍天)의 번기(번개) 치듯
 물결은 청수(淸水)의 진주(珍珠)탈(脫) 뿌리난 듯
 정염[영](情艷)한 성신현(星辰現)이요 옥출곤광(玉出崑岡)³¹⁾이 과연(果)하다
 호(浩) : 빅스(皓皓白沙)³²⁾난 말이(萬里)를 지음치고³³⁾
 청송암석(靑松巖石)이 좌우(左右)의 버러시니
 어렴관³⁴⁾의 녹두(綠豆)를 썬쳐난 듯 광천(廣天)은 창희(滄海)를 접(接)하였고
 망(茫茫)한 대(大)³⁵⁾가 호(浩)히 널너시니 중광(長廣)³⁶⁾이 요활(遙闊)하고
 천중만기(千丈萬里)를 그음[음]하니 천고절승지(千古絶勝之地)라
 소상강(瀟湘江)³⁷⁾이 안니로더(安) 번죽(斑竹)도 난만(爛漫)하다

25) 겨양가(擊壤歌) : 격양가의 오기임.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 중국의 요임금 때에, 태평한 생활을 즐거워하여 불렀다고 함.

26) 남풍시(南風詩) : 은나라 순(舜)임금이 가야금을 타면서 불렀던 시. 조화롭고 태평한 세상의 시를 지칭함.

27) 취수(聚手)하여 : 모여서.

28) 나군(羅裙) : 얇은 비단치마.

29) 만경중파(萬頃蒼波) :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

30) 무운 : 쌓은. 쌓아놓은.

31) 옥출곤광(玉出崑岡) : 옥은 곤강에서 난다.

32) 호(浩) : 빅스(皓皓白沙) : 깨끗하고 하얀 모래.

33) 지음치고 : 사이에 두고.

34) 어렴관 : 얼음관.

35) '학'가 빠진 듯함.

36) 중광(長廣) : 넓이와 길이.

37) 소상강(瀟湘江) : 소수(瀟水)와 상수(湘水). 소수는 중국 호남성의 동정호(洞庭湖)로 빠지고, 상수는 그 지류(支流). 이 근처에는 경치가 매우 좋아서 소상팔

초슈(楚水)는 아니로디 물결은 우리르
 물 우히 기력이난 검고 검은 모단(冒緞)을
 돌너슨 낙슈(洛水)의 춤을 추니 희심이 거복이요
 인간 승서(祥瑞)난 평화목화 분명하다
 층:(層層)흔 기암석(奇巖石)은 봉니슨(蓬萊山)³⁸⁾ 선객(仙客)이에 바둑판이 분명
 하다
 상디슨(上臺山)³⁹⁾ 상:봉(上上峰)의 올는 서: 좌우를 침관(瞻觀)하니
 천하강산(天下江山)이 온둥(眼中)의 역:(歷歷)하다⁴⁰⁾
 송풍(松風)은 슬: 흥고 나의(羅衣)탈 거두치니
 호흥(豪興)이 발양(發揚)하야 심신(心身)이 승쾌(爽快)하니 계망산[鷄鳴山]은 아
 니로디
 이연(哀然)흔 의식(意思) 중양(張良)⁴¹⁾의 통쇠 소리 월흔(月下)의 들이난듯
 청풍(淸風) 우히 영지슈는 호흥(豪興)을 층가(層加)하니
 인연히 도연명(陶淵明)⁴²⁾의 심야오류(深夜五柳)탈 디허난 듯
 기연흔 이식(意思)와 포일(飽逸)흔 이기(意氣) 스:로 나는 듯허더라
 즈겨 구원⁴³⁾ 굿하니⁴⁴⁾ 일월(日月) 갖흔 청춘으로

경(瀟湘八景)이라 칭함.

- 38) 봉니슨(蓬萊山) :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州山)과 더불어 삼신산(三神山)의 하나. 동해에 있다 하며 진시황(秦始皇)과 한무제(漢武帝)가 불사약을 구하러 동남동녀(童男童女) 수천(數千)을 보냈던 곳.
- 39) 상디슨(上臺山)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의 대표적인 산으로, 높이 183m이다. 서쪽으로는 등운산(騰雲山)과 칠보산(七寶山)을 바라보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동해가 펼쳐진다. 정상에 오르면 동해와 영해평야가 한눈에 들어와 전망이 뛰어나다. 상대산 서쪽 절벽을 관어대(觀魚臺)라 하는데, 이 이름은 고려 말의 학자이자 문신인 목은 이색(李穡 1328~1396)이 '상대산 너머 바닷가의 고기를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이색을 비롯하여 조선 초의 성리학자 김종직(金宗直, 1431~1492)과 고려 말·조선 초의 문인인 원천석(元天錫 1330~?) 등이 《관어대》라는 제목의 시를 남겼다.
- 40) 역:(歷歷)하다 : 또렷하다.
- 41) 중양(張良) : 서한(西漢)의 개국공신으로 자(字)는 자방(子房). 유방(劉邦)의 모사로 활약하며 초나라를 꺾고, 서한을 세운 후 장안(長安)으로 천도하는 데 공을 세웠음.
- 42) 도연명(陶淵明) : 동진(東晉)의 전원시인. 일명 도잠(陶潛). 자(字)는 원량. 어두운 현실 세계를 풍자, 비판하거나 전원의 평화로운 풍경을 묘사한 작품을 다수 남김.

슈중고혼(水中孤魂)이 되어 중어복(葬魚腹)⁴⁵ 되여시니
 옥갓치 빗난 일흠이 천지와 갓치 민멸(泯滅) 흐지라
 고인(故人)의 영연(靈筵)을 위하여 척연문낙(慼然聞落)이오 승연슈루(傷然垂淚)⁴⁶
 로다

일미여즈(一枚女子)로 강성(降生) 하니 디기(志氣)난 실노 녹(碌碌)디 아나
 단세(塵世)에 버서느 충신열여(忠臣烈女)와 문중(文章)과 도학(道學)을
 암(暗暗)히 공경감탄(恭敬感歎) 흐물 이기디 못 흐리로다
 동희강산(東海江山)을 지척(咫尺)의 목견(目見) 해야 관희(關海)랄 즈서(仔細)이
 흐여시니

흉금(胸襟)이 흰출흐외⁴⁷ 요곡기암벽(窈谷奇巖壁) 하니
 은수피절(銀水佩節) 흥부르 금일기심처(今日開心處)의 용비조죽음이라
 은도(銀刀)랄 양수(兩手)로 유류(遺流) 해야 물속 옥의 조기랄 점 : 이
 에위니여 분석(分析) 하니 향취(香臭)가 응비(擁鼻) 하다
 종일토록 완승(玩賞) 하니 도라오기 바히 슬코
 여흥(餘興)이 미진(未盡) 해야 무슨 노름 조흔손고
 춘화추월(春夏秋冬) 겨양[擊壤歌]의 사가보월(思家步月) 청소립(淸宵立)은
 남즈의 호흥시(豪興時)오
 가산유슈 성체 곳은 시주객(詩酒客)이 풍유(風流)로다
 이리 조흔 무한경(無限景)을 늦거이 도라가며 후흔(後恨)이 깃흐리라
 송풍(松風)은 슬 : 하고 가지 우희 왕보조[鸚鵡鳥]⁴⁸난 어서 가라 지촉하니
 귀심(歸心)이 촉급(促急) 하다
 홍일(紅日)은 양목(兩目)의 썩러지고져 흐디
 일광(日光)이 접천(接天) 하여 흥지 무지기 갓 벗쳐
 북두(北斗)를 향하며 옥월(玉月)이 희승(海上)의 오라니⁴⁹
 오호관희(五湖觀海)도 조커이와 월출어동산지상(月出於東山之上) 해야
 명광(明光)을 망극(罔極)의 흘렸도다
 월출(月出)곳 봉니산(蓬萊山) 선승(禪僧)의 옥제하령(玉帝下令)으로
 흥지장삼(紅之長衫)을 털쳐 입고 팔성진두(八星珍珠)를 목의 걸고

43) 구원 : 굴원(屈原)을 지칭하는 듯함. 굴원: 중국 초나라의 시인이며 정치가.

44) 곱흐니는 : 같은 이는.

45) 중어복(葬魚腹) : 물고기 배속에 장사지낸다는 뜻으로 물에 빠져 죽음을 의미함.

46) 승연슈루(傷然垂淚) : 슬퍼 눈물을 흘림.

47) 흰출흐외 : 흰칠하여. 막힘없이 시원스러워.

48) 왕보조[鸚鵡鳥] : 앵무새.

49) 오라니 : 오르니.

영낙업시 두 손으로 유리징반의 홍옥(紅玉)을 가을 들너
 건곤천지(乾坤天地) 갑업손 보비랄 정영[輕盈]이 다마 들고 분명히 올라온 닷
 흐슈(河水) 빗친 월광(月光)은 우리 고향 보건마는 귀운이 묘망(渺茫)흐다
 풍무수이요목(風無手而搖木)⁵⁰ 흐고 월무추이형천(月無遮而行天)흐디
 츠신(此身)은 엇지흐여 그림지도 고향(故鄉)의 형치 못흐난고
 초상슈류흐도다

동해(東海)에 심원(深遠)흐 경기(景概)와
 승디산형(上臺山形)의 슈려흐물 측양(測量)치 못홀지라
 골운산(崑崙山) 일지맥(一支脈)이 종남산(終南山)을 부익흐고
 황흐슈(黃河水) 말근 물이 흐강슈(漢江水) 기우러서
 오천만연(五千萬年) 우리 국세(國勢)
 성즈신손(聖子神孫)⁵¹의 계승(繼承承承)흐압서
 준(周)나라 팔빅연 기염(氣焰)을 흰명천지 기복(起復)흐난도다
 죽산기봉(竹山奇峰)은 조선을 기세(蓋世)홀 제 위국향의 되어
 이세 충의(忠義)를 장양(張揚)흐여 천기(天機)를 감동흐니
 우리 국조(國祚) 만슈무강(萬壽無疆) 오호(嗚呼) 소승(瀟湘)의 승지(勝地)라
 침관(瞻觀)흐여 명산대수(名山大水)의 모련은 경기(景概)라
 일견의 어람(御覽)코져 흠은 소옥의 이득이며
 이와 티슨천의 적벽강(赤壁江) 말근 시부(詩賦)로
 문답홀 지 업스니 감탄츠탄(感歎嗟嘆)이로다
 아조(我朝)난 동방(東方) 공지시오 디(代) 성천현(聖賢) 명망(名望)은 일월
 갖흐시니

즈손(子孫)의 영광이 조선(朝鮮)의 처업이요 만세(萬歲)의 빈너지라
 천의(天意) 불헝흐야 규리(閩裏)의 강성(降生)흐나
 일생지원(一生之願)이 용문봉치(龍門鳳寨)에 명주룰 근시흐여
 일흠을 죽빅(竹帛)의 붓치고져 조조 충현디도(忠顯大道)라 앙목(仰目)흐빅
 습빅연 고목세손(枯木世孫) 위국성심(爲國誠心) 업슬손가
 부용화(芙蓉花) 단오절(端午節)의 슈십 계류(諸類)를 팔와
 희수선천(海水山川)을 침관(瞻觀)흐니
 만당홍승(滿堂紅裳) 분명 치중(彩粧)은 화안월묘[花顏月眉]난 명월이라
 북방험처(北方險處)의 싱중(生長)흐여
 슈빅이 불영 고봉(高朋)이 만좌(滿座)흐니

50) 풍무수이요목(風無手而搖木) : 바람은 손이 없이도 나무를 흔든다.

51) 성즈신손(聖子神孫) : 임금의 자손을 높여 이르는 말.

심간(心肝)이 황홀(恍惚)하다
동해(東海)에 심원(深遠)한 경기(景概)와 승터산형(上臺山形)의
슈레초물 더강 초설(草說)하노라
무궁한 창희슈(滄海水)는 갑 업슨 경이라
너의 연소(緣所) 소견[견](所見)과 용즈(用阻) 의스(意思)로
엇지 관희록(觀海錄) 성설(成說)되어서리만는
산천(山川)이 영여하고 지시물식(地勢物色)이 가휘포 하륙(하륙)하미
아득한 흉금(胸襟)을 여러 초(草) 더강 기록(기록)하노
타인의 치소(嗤笑)⁵²랄 면치 못하리로다

52) 치소(嗤笑) : 빈정거리며 웃음.